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2026년 3월 16일 일부, 유럽아시아 노선 담당 진주연 이사 합류, 노선 역량 강화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물류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홍콩지점

- 2026년 4월 3일 ~ 7일, 연휴 (Good Friday, Easter Day, 청명, Easter Tuesday)

🌸 도쿄지점

- 2026년 4월 29일 (수) : 쇼와의 날

🌸 타이페이점

- 2026년 4월 4일~ 6일, 청명절 연휴

🌸 페낭지점

- 2026년 4월 3일 (금) : Good Friday
- 2026년 4월 15일 (수) : 말라카 역사도시 선언 기념일

🌸 싱가포르지점

- 2026년 4월 3일 (금) : Good Friday
- ✿ 하노이/호치민지점
 - 2026년 4월 27일 (월) : Hung Kings Commemoration Day
 - 2026년 4월 30일 (목) : Viet nam Reunification Day
- ✿ 중국 전지점 (충칭/상하이/광저우/톈진/칭다오/다롄지점)
 - 2026년 4월 4일~ 6일, 청명절 연휴
- ✿ 상하이지점
 - 긴급연락처 : 항공 채항자부장 86 155 0214 9791, 해운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
- ✿ 다롄지점
 - 대련지점 신규오픈 및 26년 2월부 정식 업무 개시 (대표번호 : 86-411-3924-8813)
- ✿ 밀라노지점
 - 특송사업 (배송대행서비스) 개시, 배송대행지 주소 : MAX LOGISTICS S.R.L. Milano, Italy
Viale Europa 59, Edificio 21, 20054, Segrate (MI), Italy
- ✿ 파리지점
 - 2026년 4월 6일 (월) : 부활절

지역동향 📌

- ✿ 서울지점
 -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
 - 한국 수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이란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될 전망
- ✿ 홍콩지점
 - 홍콩정부는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여행 경보(OTA)를 최고 단계인 '블랙'으로 격상하고 바레인, 요르단,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UAE) 에 대해서는 '앰버' 경보 발령

❁ 도쿄지점

- 2026년 일본기업 임금 인상률은 평균 약 5% 이상, 3년 연속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
-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석유공급 불안 대응을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

❁ 타이페이지점

-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 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음, 3월 말까지 시정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대만도 '한국→남한 (Korea South)' 표기변경 경고
- AI, 반도체 산업 전력 수요 급증 관련 원전정책 논쟁, 여당은 탈원전 정책 유지, 야당은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어 전력 공급 안정성 불안, 반도체 생산 및 투자에 불안요소로 작용

❁ 방콕지점

-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및 원유재고 부족에 대비하여 태국 총리령으로 휘발유·경유·Jet A-1·LPG 등 연료 수출 전면 중단조치 발동
-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제조업·수출부문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IMF에서 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0.5%p 하향 조정 (2.1% → 1.6%)

❁ 페낭지점

- 말레이시아 정부,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의 마스터플랜과 투자 청사진을 마무리, 3월 30일 발표
 - 양국간의 경제통합을 넘어 2030년까지 조호르지역의 GDP 성장과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남주지역을 첨단 기술 및 혁신주도형 경제 허브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

❁ 싱가포르지점

- AI·반도체 중심 제조업 강세 지속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 작용
- 아시아 통화 약세 흐름 속에서도 싱가포르 달러는 안정적 흐름 유지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

❁ 호치민지점

-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베트남 상륙 ... 주류시장 보다 '틈새시장' 적극 공략
- 'K-편의점 북진 통했다' GS 25, 하노이 상륙 1년만에 50호점 돌파

❁ 충청지점

- 2026 년 1~2 월, 충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 육해신통로를 통해 운송된 화물은 4.9 만 TEU 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지하철 15 호선 열차 등장: 설계 속도 140km/h, 최대 승객 수 2428 명, 1 단계 개통임박

❁ 광저우지점

- 2026 년 중국 전인대에서 15 차 5 개년 계획 (2026~2030) 발표, 1 인당 GDP 를 2020 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8 대 목표 추진하고 질적 성장, 기술 자립, 고품질 발전을 강조
- 2026 년 주요 경제 목표는 GDP 성장률 4.5~5.0% (4 년 만에 하향 조정), 재정적자규모는 GDP 대비 4%이내, 소비자물가지수 (CPI) 2.0%, 도시 신규고용 1,200 만명, 국방 예산 전년비 7% (5 년 연속 7%대)

❁ 다렌지점

- 러시아, 동남아노선 확대 지속 및 자동차, 화학제품 중심 수출 증가

❁ 텐진지점

- 다중 운송 연계 시범사업 : 중국세관에서 해상-철도, 수로-수로 다중 운송 연계 업무 모델 시범사업 개시, 천진항이 북방 지역 첫 번째 시범 항구로 선정, 화물대리업자는 세관 신고 한번으로 전체 과정 통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칭다오지점

- 국가 신형 공업화 시범구 최초 조성 도시로 선정 :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산업 구조 고도화, 가치 창출 경로, 발전 생태계 조성 등에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예정

❁ 밀라노지점

- 이탈리아 정부 재정 긴축 기조 유지에 따라 2026 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약 3.7% 수준으로 관리 추진, 기업 보조금 축소 및 세제 조정 논의로 산업 전반 비용 부담 증가
- 부활절 및 봄철 관광 시즌 진입으로 밀라노 등 주요 도시 호텔 점유율 70~85% 수준 회복,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소비 및 도심 물류 수요 확대

❁ 파리지점

- 마크롱 대통령 방한 : 4/2~3 국빈 방문, 한/불 수교 140 주년 기념 정상회담 (2017 년 취임 후 첫 방한) 개최 예정이며, AI, 양자 기술, 우주, 원자력 등 4 대 첨단 기술 분야 MOU 체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예정

- 프랑스 GDP 성장률 2025년 둔화 이후 2026년 약 1% 내외 저성장 흐름 유지 전망

물류동향

서울지점

- 2026년 4월 항공 화물 시장은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공급 불안정과 유가 상승 영향이 동시에 반영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중동 영공 통과제한 및 허브기능 약화로 인해 글로벌 항공 화물 공급량이 단기간 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공급이 최대 30~40% 수준까지 급감하는 유럽행 항공화물시장 위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
-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의 대폭적인 인상과는 별도로 아시아-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항공운임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
- 해상 운송 시장에서도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일부 선사의 서비스 중단 및 항로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화물은 중간 기항지 하역 후 화주가 직접 운송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물류 운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홍콩지점

- CX, 두바이-리야드 노선 모든 화물기 4월 30일까지 취소
- 홍콩 항공사들 FSC 긴급 조정 공지
- OOCL 긴급유류할증료 (EBS) 시행, OOCL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연료 공급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임시 긴급 유류할증료(EBS)를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관할외 화물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3월 23일부터, FMC 관할 화물에 대해서는 4월 13일부터 긴급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공지
- SF 익스프레스, 3월 16일(월)부터 소포 유류할증료 HK\$1 추가 부과중

도쿄지점

-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결항이 급증하면서 항공화물공급이 약 18% 감소한 것으로 보도, 에어프랑스도 항공유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 일시 운행 중단
-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해운 전쟁보험료 15~20 배 상승 (평상시 선가의 0.01~0.05% 수준에서 최대 1.5%~3.0%까지 상승), 일부 재보험사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취소를 통보

- 중동 노선 컨테이너 운임 최대 4~5 배 급등, 초대형 유조선(VLCC) 일일 용선료가 \$120,000 에서 \$420,000 로 상승
- 주요 선사(Maersk, MSC 등)의 중동 경로 예약을 중단하면서 선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항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우회시 운송 기간 10~15 일 추가 발생)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타이페이지점

-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화물 한국행 유류할증료 인상
 - KE/LJ : NTD15 (USD0.48) → NTD22 (USD0.70/kg)
 - OZ : NTD12 (USD0.38) → NTD13 (USD0.41/kg)
 - CI/BR : NTD11 (USD0.35) → NTD13 (USD0.41/kg)
 - BR NTD11 (USD0.35) - > NTD13 (USD0.41/kg) 인상
- * OZ, CI, BR 주 단위로 인상 가능성 있음
- 항공기 결항, 연료 절감을 위한 화물탑재 제한으로 공급 부족현상 심화, SIN, BKK, HAN 행 위주 운임인상 지속
- 3 월 28 일부, KMTCC EFC (Emergency Fuel charge) 부과, 구간에 따라 USD100/200/200
- 선박지연 → 컨테이너 회전율감소 → 공컨테이너 부족 → 스페이스 확보 애로의 악순환으로 해상 추가 비용 외 운임 동반 상승

❁ 방콕지점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
 - 2 월 28 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마에르스크·MSC·CMA CGM·하팍로이드 등 주요 선사, 호르무즈·홍해 통과 노선 전면 운항 중단 및 케이프 오브 굿호프 우회 전환
 - 우회 항로로 리드타임 약 10~15 일 증가, 컨테이너당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 태국 수출 기업의 유럽·중동항 화물 운임 2~3 배 상승 및 스케줄 불확실성 직면
- 램차방항 혼잡 심화 및 화물 처리 리드타임 대폭 증가
 - 글로벌 우회 물량 집중 및 화물 급증으로 램차방항 내 컨테이너 처리 적체 심각
 - 선박 접안 대기 및 게이트 통과 시간이 평상시 대비 약 2~3 배 이상 지연 (현장 트럭 대기 10~15 시간 보고)
 - 수입 화물 기준 픽업 가능일 지연 빈번 발생 중 → 도착 후 즉시 D/O 발행 및 픽업 일정 탄력적 조정 필요

- 수출 화물 CY Cut 시간보다 최소 2 일 이상 여유 확보 권고
-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급증 및 운임 상승
 - 해상 루트 차질에 따른 항공 대체 수요 증가로 BKK·DMK 화물 처리 부하 확대
 - BKK 항공화물 터미널 혼잡 심각 → 수입 화물 처리 리드타임 현재 3~4 일 소요
 - 중동 위기로 우회 항공화물 대거 유입 + 망고 시즌 신선화물 집중으로 BKK 화물터미널 처리 용량 초과 상태 지속
 - 항공 수입 화물 기준: 항공기 도착 후 화물 불출까지 통상 3~4 일 소요 → 긴급 화물의 경우 AWB 도착 즉시 터미널 사전 연락 및 우선 처리 요청 필수
 - 통관 서류(Invoice, Packing List, AWB 사본) 사전 준비 및 Customs Entry 선행 신고 권고 → 화물 불출 후 즉시 통관 진행 가능하도록 대비

🌸 페낭지점

- CIMB 증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시작된 2 월 28 일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130~170 척의 컨테이너 선박 (전세계 컨테이너선의 2~10% 수준) 이 정박중으로 글로벌 해운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말레이시아도 대부분 간접적인 노출에 직면해 있어 주로 물류 비용 상승, 배송 지연 및 일정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노선의 운임은 최대 4 배까지 급등, 전쟁 위험 보험은 화물 가치의 약 0.25%에서 최대 7.5%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물류비용 압박이 가중

🌸 싱가포르지점

- 중동 지역 분쟁으로 항공·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 항만 혼잡 및 지정학 리스크로 고부가가치·긴급 화물 중심 항공 전환 증가

🌸 호치민지점

- 3 월 초부터 승객 급증으로 한국/미주/유럽행 화물 공급 타이트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항공운임 지속 상승 추세
- 한국행 해상 운임은 큰 상승 없으나 미주, 유럽행 해상운임은 급등상황, 항만 적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통 2~3 일 정도 지연

🌸 충청지점

- 2026년 2월 누계 기준, 수출 주요 품목은 기계·전자 제품이 871.8억위안으로 32.4% 증가, 자동차가 88.9 억위안을 기록하며 89.3% 증가하여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 노트북 컴퓨터 수출은 239.1 억위안로 2.5% 증가, 휴대폰은 84.3 억 위안으로 26.1% 증가

❁ 광저우지점

- 중동계 항공사의 운항 중단으로 동북아발 유럽 직항 노선 수요 17% 급증 : 중동 분쟁 영향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항로 우회 운항으로 인해 Payload 감소, 전쟁 영향으로 일부 유럽 목적지 화물이 직항 대신 프랑크푸르트(FRA) 경유편으로 전환되며 공급 부족 및 운임 상승 압박 가중, 암스테르담(AMS)항 전자상거래 물량은 회복 추세
- 유가 폭등 직격탄, 4 월 항공 유류할증료 '3.5 배' 인상 예고 : 중동 사태로 인한 항공유 가격 폭등하면서 4 월 적용되는 국제선 항공권과 화물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
- 주요 선사, 사우디-터키 경유 운송 대안 제시 : 아시아-중동(FM1/AGX) 노선을 중단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을 기항하는 아시아-지중해 구간 노선(AE19/SE6)을 신설, 이는 호르무즈를 피해 홍해를 거점으로 중동 화물을 처리하는 전략
- 호르무즈 통항 차질 여파로 컨테이너선 항로 우회 항차 360% 급증 분석 : Project44 의 최신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컨테이너선의 항로 우회가 360% 급증, 일평균 우회 항차 수는 기존 218 건에서 1,010 건으로 폭증했으며, 3 월 5 일 기준 2,363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선전지점

- UPS, FedEx 등 특송사 중동·아프리카 일부 국가행 화물 접수 중단
- 중동전쟁 영향으로 4 월부 항공 운임 약 30% 인상 예상, 전자상거래 위주 물량 타격, 홍콩 물류협회는 중동 사태로 수십만 톤 화물 적체 가능성 경고

❁ 칭다오지점

-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규제가 강화, 표본조사에서 최근 3,826 개의 중국 컨테이너가 5H 검사를 받았고, 그중 3,137 개가 강제 반송 (반송률이 82%), 이와 동시에, 3 월 13 일 CBP 는 추가 통보를 통해 3 월 20 일 IOR (Importer of Record) 번호를 대규모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 머스크가 최근 발표한 중동 지역 운영 공지에 따르면, 회사는 3 월 16 일부터 일부 항구에서의 수출입 예약 서비스를 재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냉동 컨테이너, 위험물 및 특수 화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항구와 킹 압둘라 항구, 그리고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에서의 수출입 예약 재개

❁ 텐진지점

- CMA CGM 그룹 중국-태국 신규 항로 : 정리해운(CNC)이 운영하며, 천진, 대련, 청도, 심천 서커우항과 태국 람차방항을 연결

- 중동전쟁 영향으로 아시아-태평양-중동, 남아시아-유럽 항로 운임 주간 35%-54% 인상

✿ 밀라노지점

-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영향으로 국적사중심 FSC(Fuel Surcharge) 4 월 1 일부 eur 0.20/kg 인상
- 항공의 경우, 중동계 항공사 비운항 속출에 따른 공급감소로, 이태리아발 한국항 항공운임을 기존 대비 대폭 상향 조정중 : eur 0.50~0.90++ 수준
- 해상의 경우, 부산항의 경우 FCL 해상운임은 변동 없으나 EFC (Emergency Fuel Charge) 신규 적용 : HMM eur 75/teu, MSC eur50/teu
- 유류비 상승 및 드라이버부족 (기존대비 약 7~10% 감소) 현상 지속으로 유럽내 트럭운임 전월대비 5~10% 인상

✿ 파리지점

- 중동 CARRIER 의 결항으로 인해 항공 스페이스 부족 현상 지속 및 운임 상승 추세 : KE, OZ, KJ : 4/1 (수) 부 FSC EUR 0.20/kg 인상
-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EFS(Emergency fuel surcharge) 발생 : HMM USD75/TEU, ONE USD80/TEU, MSC USD50/TEU

•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미국/이란간 전쟁 영향으로 일부 항공사의 운항 제한 및 스케줄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동 경유 환적 화물의 진행이 제한되는 사례 증가
- 또한 일부 항공사는 운항 횟수 조정 및 노선 재편을 진행하고 있어 주요 노선별 공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 아울러 4 월 16 일 이후 한국발 유류할증료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고객사 사전 안내 필요, 프로젝트성 화물증가에 대비한 사전 스페이스 확보 및 운임상승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됨

✿ 홍콩지점

- Hong Kong Air Cargo, 2026년 4월 11일~12월 31일까지 HKG-DEL 화물기 운항 개시 (3/W, D357, A330-200F, payload 60ton)

✿ 타이페이지점

- 26년 하계기간 진에어 (LJ) 운항시간대 10~40분 미세 조정, 심야 출도착 패턴 유지

✿ 방콕지점

- 해상 : 호르무즈·홍해 경유 노선 전면 운항 중단
 - CMA CGM : 중동, 걸프만 기항 노선 신규 부킹 중단, 제한 조건부 일부 수락
 - Maersk, Hapag-Lloyd : 케이프 우회 전환 완료, 중동 기항 포함 노선 리드타임 35~45일
 - 전 항로 BAF(연료할증료) 및 War Risk Surcharge 신규 부과 또는 대폭 인상
- 항공 : 중동 경유 노선 운항 편수 조정
 -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 방콕발 편수 일시 축소
 - 유럽향 항공화물은 동남아, 인도 경유 대체 루트 이용 증가 → 추가 리드타임 발생

✿ 페낭지점

- PEN-ICN : KE 화물기 주간 6회, KUL-ICN : KE 화물기 주간 2회, 여객기 DAILY 지속 운항

✿ 페낭지점

- OZ 여객기 Daily Consol Service 운영
- KJ 화물기 장비, 벌크 화물 전문 서비스 운영

✿ 다렌지점

- 범영웨리에서 운영하던 영구-인천구간 4월1일부로 운항취소
- 단동웨리 단동-인천구간 기존 주3회 (화/목/일)에서 주2회 (화/일)로 변경

✿ 충칭지점

- 26년 하계시즌, OZ 청두(CTU), 충칭(CKG) Daily로 복항 (각각 A321, NARROW BODY)

✿ 밀라노지점

- 2026년 3월말부터 OZ, MXP/ICN 주간 3회 여객기 취항 계획 (MXP 출발 기준 화/목/토)



방콕지점

-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디젤 가격 급등, 태국내륙육상물류 비용 12% 내외 상승 집계되고 도로 화물 운임은 중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5% ~ 15% 인상 통보 사례 증가
 - 유가 통제 불능 상황 지속 시 트럭킹·터미널 핸들링·보관료·통관 제반 비용 등 태국 내 모든 물류 비용의 연쇄 인상 불가피
- 태국 → 한국향 해상 운임 EFS (Emergency Fuel Surcharge) 할증료 신규 부과, 3 월 선적분부터 USD 100 / 20ft, USD 200 / 40ft (45ft 동일 적용)
- 태국내 Resin (합성수지·플라스틱 원료) 제조·무역업체 및 사출·성형 등 Resin 가공 업체들의 재무 유동성 악화 → 운임 미결제 리스크 증가, 의심 거래처 발생시 현지 맥스 태국 지점에 즉시 공유 필요